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110주년
표어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데살로니가전서 5:18)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許可 (毎月一日発行)
2016年 10월 1일 (토) 제 756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김성제 · 편집인/ 김병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모든 것에 유익한 순종

<누가복음5:12-16>



한세일 목사 (코베교회)

우리는 교회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도 어쩌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는가’ 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여기까지 하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신에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때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지금 마을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에 들어 올 수 없었습니다. 병이 치료되기 전까지 그들은 사회와 격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을에 들어 올 때에는 자신의 병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알려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만졌던 것들을 만졌을 때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을에 들어 온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은 돌로 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병자는 예수님께 나아와 자신의 병을 고쳐 주시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표현으로 말하자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시대의 사상 속에는 이 심한 피부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거의 레벨이 비슷한 아주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의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반드시 나의 병을 고쳐 주신다. 나는 예수님께만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병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멀리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는 오

직 예수님께 나아 왔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없었다면 자신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할말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병자의 믿음을 높게 보시고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은 “너는 아무에게도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실 분은 너를 고쳐 주신 하나님 이시다. 그러니 너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곳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소문을 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도중에 내 마음대로 끝내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만하면 되겠다.’ 하고 도중에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했습니다.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의 불 순종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큰 방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말은 사명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역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왔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없는 곳을 이동하시어 그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순종은 우리의 기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서 일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까지 순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순종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10名様～200名様のお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グ・カヤ gum・舞踊) ◆韓国語講座 ◆各種子どもクラス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 ◆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グ)

税込	平日	休前日
シングル	¥6,500	¥6,000
ダブル	¥10,500	¥9,700
トリプル	¥13,500	¥12,500
※朝食・コーヒー¥200(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

개 교회에서 일어난 시각장애인 차별적 대응 사건에 대한 재일대한기독교회의 태도 표명

역사를 인도하시며 지극히 작은 존재를 사랑하시고, 또 이 세계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재일대한기독교회 위에 풍성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9월3일, 한 교회에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인도건을 동반하여 교회내에 개설중인 한국어 교실에서 배우고 있는 아들을 마중하기 위해 교회 현관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교회 목사가 개의 입장을 막았고, “인도건은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라는 시각장애인의 말을 들은 후에도 개를 데리고 나갈 것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언행은 그 때 그 곳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인정할 수 없는 차별적 대응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목사의 그 언동에 그 분은 격노하였으며 목사는 그것에 대해 자신의 발언을 깊이 사과를 하려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점에서 목사의 사과를 시각장애인 그 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9월5일, 그 시각 장애인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은 김병호총간사는 그 분에게 총회 행정사무담당 책임자로서 정중히 사과하고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전국 교회에 공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그것을 실행에 옮겨, 이 일에 대하여 전국 교회에 이메일로 알리면서, 또 각 교회에서는 그러한 차별적 대응이 없도록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후 총회 임원회는 9월7일, 긴급히 임원회를 열어 이번 일에 대하여 경위의 확인, 사태의 문제성, 그리고 이후의 대응책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검토 결과 총회 임원회는, 이번 일은 한 목사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언동의 배경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생각이 부족했다는 것, 그리고 이 문제는 한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제든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총회 전체가 받아들여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하였습니다.

- (1) 이미 준비해 놓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당사자 목사의 사죄문과 총회 전 교회에 대한 사죄문에 대하여, 임원회 안에서도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성의있는 사죄문이 되도록 촉구할 것.
- (2) 당사자인 목사가 상기 사죄문을 가지고 지방회장 및 총회 총간사와 함께 시각장애인에게 사죄 방문할 것.
- (3) 상기의 사죄문과 함께 이번 건에 관하여 재일대한기독교회로서 사과와 반성을 담은 태도표명문을 작성하여, 사죄문과 함께 총회기관지 <복음신문> 10월호에 게재할 것. 등을 총회 임원회에서 확인 하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사회에서도 인도건의 공공시설 입장은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상식입니다. 우리들 가까운 주변에는 이러한 장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감각의 부족함이 이번 사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40에 왕인 줄도 모르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잠잘 곳도 없는, 또 갇혀있는 사람들을 간과하지 않고 곁에서 도왔던 <양의 무리> 같은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왕인 줄 알았다면 도왔겠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간과하고, 소홀히 했던 <염소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45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순종하여 민족적 차별을 받는 자나, 장애인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시작으로 “지극히 작은 자” 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을 곁에서 도와 주는 것을 가르치고 배워왔을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을 이번 이 일의 당사자인 목사 뿐만 아니라,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 전체가 크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 일은, 목사 한 사람의 문제로 지나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에 속한 교역자와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차별로 인하여 그 상처와 아픔을 지닌 사람들, 그리고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간과되어진 일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이 문제를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의 문제로 여겨, 십자가의 주님 앞에 깊이 다시 묻고, 우리 교회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었는가를 인내하면서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가 전화로 총회장과 총간사에게 했던 설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목사가 개를 동반하고 교회당에 들어온 사람을 목격한 순간에, 인도건을 데리고 온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먼저 간주해 볼 감성과, 잘 확인하고 언동을 하는 신중함이 부족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런 감성과 주의력이 부족한 채로 ‘신성한 곳에 동물을 데리고 오면 안된다’ 는 자신의 고정관념, 가치관이 먼저 노출되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지켜야할 거룩한 장소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만들어 낸 것, 전통적으로 지켜온 종교적 제도와 세계관 속에서 ‘속된 것, 더러운 것’ 으로 간주된 것들을 배제하고 만들어낸 ‘거룩한 것’ 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복음을 통하여 가르쳤던 그 뜻에 순종한다면 차별과 박해에 고통받고, 슬픔 속에 살아왔던 ‘지극히 작은 자’ 가 먼저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 고통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누가복음16:19-31)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이 일본 땅에서 재일코리아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의 하나’ 로서의 부르짖음을 계속해 왔었고, 그 외침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교회에 들려져서 지금까지 공생과 평화의 장막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재일대한기독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또한 전한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역사가 더럽히고 왜곡되지 않도록, 잘못을 범하기 쉬운 우리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면서, 용서받고, 거듭나고, 그래서 주님께 인도되어 ‘지극히 작은 자’ 곁에서 함께 길을 걸어가기로 진심으로 기도하며 바라는 바입니다.

2016년 9월 8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김 성 제

- ◆9월3일,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 소속의 한 교회에서 시각장애인 한 분이 동반한 인도건을 담임목사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9월10일, 총회 임원회는 빠르고 성의있는 대응으로 시각장애인 그 분에게 그 교회의 담임목사와 총회 대표(총간사)가 진솔한 사죄를 하였으며,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우리의 사죄를 받아주었습니다.
- ◆우리들은 그 후, 그 교회와 담임목사, 그리고 소속 지방회와 대화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10월23일에 담임목사와 총회장 및 총간사가 다시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만나서 새롭게 사죄하며 합의하여 상기 <재일대한기독교회의 태도표명>을 게재하게 된 것입니다.
- ◆이제부터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이 문제를 자기자신과 자기교회의 문제로 삼고 십자가 앞에서 되풀이 갈 것입니다.

청년회全協 하기수양회 개최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며 함께 전도하는 청년



8월 10일-13일 효고현(兵庫県) 알파인 로즈 빌리지에서 제 67회 전국청년하기수양회가 열려, 각 지역 교회에서 25명의 청년과 목사가님이 참가했다.

수양회는 이명충목사님의 개회예배로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기 위해」(로마서12:15-18)라는 말씀과 저녁에는 백승화 대표위원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첫째 날의 발제 시간에서는 지금 일본을 살아야하며 느끼는 어려움과 전국협의회에 대한 생각, 또 수양회의 매력 등을 참가자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오전은 중앙위원의 짧은 발제에 이어 참가자가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함께 했다. 오후에는 스포츠 대회를 열어 비치볼과 농구 등을 하며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고, 저녁에는 8·15예배로 허백기목사님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라」(이사야1:10-20) 설교를 들었다.

셋째 날은 「모두가 달라서 모두가 좋다」(누가복음5:17-26/10:25-37)라는 제목으로 이선희목사의 주제강연을 듣고 그 자리

에서 그룹으로 나누어 연극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강연은 「에너지어그램」(성격유형검사)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기 다른 멋진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개인의 열 걸음 보다 함께하는 한 걸음」이라는 말씀과 평화의 기도가 함께 공유하였다.

저녁에는 스탠드대회가 열려 3 분단이 수양회에서 배운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서도 유머러스하고 독창적인 내용도 있었다. 마지막 저녁에는 참석한 청년들이 어느새 많이 달라져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네째 날은 전체활동을 하고 이번 3일간의 수양회에서 느낀 것을 서로 나누었다. 폐회예배는 김신야목사님의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자」(요한복음15:5)의 설교와 함께 참가자 모두 찬양과 기도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것을 다짐하는 은혜충만한 시간이었다.

각 프로그램에 앞서 이명충목사님과 허백기목사님이 피아노 반주하는 청년과 함께 찬양팀을 이루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3박4일 매 순간 함께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 백승화)

《경도(京都)교회》

김덕수 명예장로 소천



경도(京都)교회 김덕수 명예장로가 지난 9월12일 입원중인 병원에서 소천하여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향년88세) 故 김덕수장로는 1972년 경도교회 장로로 장립을 받아 교회 뿐만 아니라 관서지방회를 위하여 귀한 봉사를 하였으며 총회 부총회장(1995-1997년)을 역임하였다.

WCC “인종 문제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Racial Justice Solidarity)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상)

— 4월 19~27일 —

김 필 순 (부총회장/사카이교회)

불안했다. 9일간 12편씩이나 비행기를 타야하는 스케줄에다가 어떤 식의 회의인지, 누가 참가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었다. WCC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아도 “당신이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답장 뿐이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 중심가에 자리한,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임마누엘 아프리카 메소디스트 감독교회였다.

작년 6월 수요일의 성경공부 모임 중에 갑자기 21세의 백인 남성이 난입해서는 총을 난사하여 목사를 포함한 9명이 살해당하는 고통스런 사건이 일어났다. 흑인을 향한 편견과 증오에 사로잡혀 백인의 우위성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했던 것도 수요일이어서 집회실에는 나이 많은 여성들이 여유롭게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잠깐 재일 1세의 할머니들을 마주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 말을 걸자 상냥한 미소로 대하여 주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이 느껴졌다.

이 교회를 무대로 흑인 공동체가 받은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가 백인들과 함께 진행되어 왔다. 백인 우월주의 사회, 그리고 교회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공통의 인식, 선거를 통해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필요

성, 그 뿐만 아니라 교회 스스로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토론이 진전되어 왔다고 한다.

그날 치유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영국에서 온 한 목사가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다. 자기가 원래 있는 곳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현장에 와서 울려 드리는 기도야 말로 깊은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미국에서 지낸 1주일은 인종차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교회를 방문하여 그 안에서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화해와 정의를 위한 사역과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배우는 순례의 여행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



2016년 10월 6일

통일교 원리문제 전국연락회 개최

2016년도 통일교 문제 전국연락회가 9월1일(월)-2일(화) 에히메현(愛媛県) 마쓰야마시(松山市) 도고(道後) 에 있는 호텔 쓰바키관 및 마쓰야마히가시교회에서 개최되어, 재일대한기독교교회에서는 통역자로서 강장식목사(시나가와교회), 신학교시위원회에서 김승희목사(오카야마교회)가 참석했다. 올 해는 통일협회문제 및 컬트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있는 탁지웅신부(일본성공회), 탁지일교수(부산장신대)를 강사로 청하여 통일원리문제 및 이단에 관한 공개 강연을 가지게 되었다. 강의를 통해서 최근의 일본 및 한국에 있는 이단과 컬트에 의한 피해상황이나 대책방법도 보고되었다.

둘째 날은 일본기독교단의 각 교구(홋카이~오키나와) 참가자 대표에게서 통일원리와 이단문제에 대한 대책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사무국의 총괄보고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토의 시간에 공개 토론회에 들어가 20~30년 걸쳐서 “이단에서의 탈회운동” 을 계속해 온 3명의 봉사자의 보고와 증언과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이 연락회(연구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11명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들이 참석했는데 “한국교회는 사회적 문제로서 이단에 대처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그 문제들은 교회규칙 및 우수한 조직신학자들의 의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대책이 명확화되고 있다” 는 힘찬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이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법(즉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예방’ 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단들의 “전략” 도 잘 알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이 연락회를 통해서 “이단과 컬트” 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즉 ‘예방법’ 을 어느정도 배웠을 것이다.

재일대한기독교교회에서도 지금 신학교시위원회가 “이단” 에 관한 책자를 작성하고 있지만, 그 모습과 방법을 바꾸고 정통교회에 침입하여 그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려는 “이단” 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이단” 에 관한 연락회나 연구회를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회나 지방회에서도 “이단” 에 대한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배워야 할 것이다.

(보고 : 김승희목사)

서부여성회

1일 연수회 가져 하나님·인간관계에서의 고통과 은혜

서부지방회여성연합회의 <1일 연수회>가 7월14일(목)오전11시부터 고베동부교회에서 개최되어 32명이 참석했다.

개회예배는 한승철목사(고베동부교회 부목사)의 ‘슬로브핫 말의 제안’ (민수기27:1-11)의 제목으로 메시지가 있었다.

점심은 고베동부교회 여성회가 정성이 담긴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주었으며, 오후부터의 연수회는 한승철목사를 강사로 테마 <하나님·인간관계에서의 고통과 은혜>라는 강의를 통해 은혜가 풍성한 연수회를 가졌다.

(보고 : 유정혜)



<여성회 총무부임 인사>



8월1일 부터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로 청방받아 섬기게 된 이시바시 마리에(石橋真理恵)전도사입니다.

태어나서 자라난 요코하마를 떠나는 것, 또한 전도사로서 섬겨왔던 요코하마교회를 떠나는 것이 쉽지않아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던 중,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총무로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그리고 성실히 감당하려 합니다.

주일에는 사카이(堺)교회에서 전도사로서 교회학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줄 어린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고 싶습니다.

주일에는 사카이(堺)교회에서 전도사로서 교회학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줄 어린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고 싶습니다.

유학소식

재일대한기독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신학생으로서

고 대한 (중부지방 신학)



할렐루야. 저는 동지사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지금은 한국의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고대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친의 직장 관계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일본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나고야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살면서 일본생활에 익숙해 있던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어 처음에는 이 한국생활 적응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문화의 차이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익숙하여 대학원에서 공부도, 교회에서 봉사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울 은평구의 서문교회에서 유치부를 담당하는 교육전도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의 언어로 바꾸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조

금 어렵지만 귀여운 아이들과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의 공부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미숙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반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학 공부가 즐겁고 성경의 지식을 습득할 때 너무 재미 있습니다. 하나님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매일 드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은 1년 반의 신학대학원 생활을 더 엄격하게 자신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공부하려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재일대한기독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신학생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